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4월호

통권 제 14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3월 교우소식

새 교우

♣ **김동환**(36세), **김미향**(33세)씨 : 종로구 부암동 208-2번지에 사는 이들 부부는 이덕주집사의 아들내외이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 종로성당에 다녔으나 함께 사는 어머니와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하셨다. 김동환씨는 종로성당에 다닐 때에도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현재 2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신다.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을 담당하시고 귀여운 딸 민서는 집안의 재롱둥이로 구역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구역장인 송혜자집사와 함께 새가족 등록심방을 마쳤고 4교구 9구역에 소속되어 있다.



♣ **이현순**씨(62세) : 고향(영풍군 불감면)의 지역 분위기로 인해 깊은 불교적 영향을 받은 이현순씨는 매년 초파일마다 절에 나가셨던 분이시다. 8년째 함께 사는 며느리인 이진숙집사(남편 유은종씨)가 전도를 하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 평생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초청에 선뜻 응락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며느리는

말한다. 성북구 성북동 177-2번지에 사시며 7교구 15구역이다.

♣ **오영숙**씨(37세) : 종로구 계동 58번지에 사신다. 그동안 재동교회에 다닌적이 있고 동네의 몇몇 교회를 둘러보다가 우리교회에 꾸준히 다니셨다. 그러나 오랫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다가 이번에 결심하고 등록하게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심방을 하지 못하였으나 교구장인 고옥희권사가 꾸준히 출석과 교회생활을 살피주고 계신다. 3교구 6구역.



♣ **김용찬**(38세), **이승희**씨(35세) :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3차아파트에 사시는 이들 부부는 독일에서 해외근무를 하는 동안 당시 박병욱목사님이 시무하시던 한마음교회에 출석하였다. 독일에서 이승희씨는 유치부교사와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였고, 김용찬씨는 사진과 방송분야에서 봉사를 하였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우리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녀는 수호, 지수 둘이다. 교구는 5교구 12구역이다.



기 증

- ★ 유연준 권사 성찬 떡
- ★ 문창아 권사 성찬 포도주
- ★ 김영석 장로 부활절 계란 3,330개
- ★ 신순예 집사 부활절 계란 720개

출 산

- ★ 민동현·김명인집사(민대홍장로·정화성권사 1남), 16일 득녀.(민서회)

별 세

- ★ 이희중성도(이진구집사·차순희권사 1남, 56세) 12일 별세. 서광교회 집례

축 하

- ★ 조기현장로 장로교육원 2년과정 6기 졸업

환 자

- ★ 김공환집사(유연준권사 남편), 서울대병원 7118호.
- ★ 조금선교우, 서울대병원 7201호
- ★ 진승일교우(최령자집사 1남), 저동백병원 911호.

교회창립 96주년 기념예배

3월 첫주는 교회창립 96주년기념으로 예배를 드렸다. 말씀에 본교회 원로목사인 유경재목사가 시편15:1-5과 마태복음 5:1-12로 “팔복과 선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창립 96주년이라는 안동교회의 기본의식인 선비정신을 강조하였

다. 선비정신은 청빈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정신,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신이며 팔복의 가난한 마음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오후에는 창립기념으로 기관별 찬양발표회의 시간을 가졌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사순절을 맞아 2주간동안(14일-26일) 오전 5시 30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였다. 매일 평균 60명이 나와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매일 각 부서의 특송이 있었고 박병욱목사의 말씀과 대표기도자 2인의 기도로 진행되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 연속기도회를 예배실과 기도실, 여전도회실 등 각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개인이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미리 신청하여 연인원 164명이 기도를 하였다.

부활주일에배, 성찬식

3월 27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부활주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는 전체 학생과 교사들이 준비한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안국역과 정독도서관, 인사동 등 교회주변의 지역에 나누어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 계란은 총 3,000개를 여전도회에서 삶고 포장을 하였으며 선교국에서 총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부활절에는 학교옆에 있는 덕성여고에 1,000개의 부활절계란을 전달하였다. 교회에서는 떡과 음식을 준비하여 교우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심방 시작

3월 8일부터 올해 대심방이 시작되었다. 심방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며 1교구 1구역부터 시작하였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가정을 축복하는 이번 심방에는 담임목사 내외와 교구장, 교구목사들이 동행하고 있다.

전반기 성경공부 시작

3월 9일부터 시작된 올해 교육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수요성경공부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미 시작이 된 상태이고, 성경통독반(최창해목사 인도)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주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자훈련(이성철목사 인도)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예수 여성 성서(구희숙목사 인도)는 토요일 오후 2시반에 진행되고 있다.

구역지도자공부 시작

구역지도자공부는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에 구역공과를 공부하고 교구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교구장과 교사 구역장 등이 모두 참여하여 공과를 공부하고 있고 담임목사님이 공과를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교구출석관리를 위해서 교구보고서와 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구보고서는 주일예배 출석 상황을 점검하여 교구장이 제출하며, 구역보고서는 각종 예배상황과 기도제목, 구역 상황을 기록하여 구역장이 제출한다.

소허당 문화강좌 시작

2005년 상반기 소허당 문화강좌가 3월 8일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구희숙목사는 창세기 1장 26-28절로 “문화를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내성지탐방이 진행되고, 목요일에는 단전호흡이 진행된다. 국내성지탐방은 혜성감리교회 교육전도사인 홍이표전도사가 강의와 답사를 진행하고, 단전호흡은 민경숙집사가 지도하고 있다.

3.1절기념예배

3월 1일 오전 11시 안동교회 삼일절 8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유해옥집사가 인도하고 김용원장로와 이순옥집사가 대표기도를 하였다. 이날 말씀은 최창해목사가 마가복음 5:25-34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통일을 위하여, 안

동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삼일운동과 기독교정신을 계승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다.

세계기도일 예배

해마다 3월 셋째주 금요일에 드리는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교회여성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교회일치정신, 인류의 치유와 구원에 대한 전망을 펼쳐왔다. 교회여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 분열된 교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상처를 싸매고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왔다. 올해 세계기도일 예배는 폴란드 교회여성들이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Let Our Light Shine)라는 주제로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렸고 폴란드어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쉬체인쉬치 보제’(Szezesc boze)로 인사를 나누었다. 올해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자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남선교회 헌신예배

남선교회는 3월 둘째주에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강사인 민경배교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고 담임목사인 박병욱목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 예배 후 간단한 다과회를 가지면서 회원들과 교우들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성금요일 음악예배

성금요일 음악예배에는 2부찬양대가 J. S. 바하의 『마태수난곡』을 발췌하여 연주하였다. 지휘에는 최덕천집사, 반주는 신수정선생이 하였다. 제1부는 5. 축제기간에 그러면 안된다 13. 무교절 첫날 14. 어디에 차려야 합니까 15. 그는 말하였다 23. 당신의 곁이라면 26. 당신 곁에 나 있으니 35. 슬피 울어라, 제2부는 43. 그는 죽일 죄인이오 47. 베드로는 궁전 뜰에 49. 주님은 곧 떠나오나 50. 이른 아침에 54. 명절이 되면 59. 그들은 소리 높여 말하였다 62.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63. 아픔과 비웃음에 71. 오정때부터 78. 무릎꿇어로 진행되었다.

한빛의 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사순절이 지난 3월 29일 한빛회원들은 한빛의 날을 가졌다. 한빛여전도회는 65세 이상의 여성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교회 여성연령층중에 가장 높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오신 분들로 기도와 전도뿐 아니라 교회안팎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날 회원들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며 점심식사와 옷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친교를 다졌다. 회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한빛의 날을 마무리하였다.

설교집 1호 발간

안동교회 홍보출판위원회는 2005년 제1호 설교집을 발간하였다. 설교테이프와 같은 <생명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설교집은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발행될 예정이다. 병원과 군부대, 교도소와 각종 사업장 등과 전도용으로 배포하여 생명의 샘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여질 것이다. 홍보출판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교회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인데 올해에는 교회홍보용 부로시어와 교회홍보책자를 제작할 준비중에 있다.

대학합창단 부활절 연주회

대학합창단은 3월 29일(화)에 고난과 부활절 음악회를 안동교회에서 열었다. 지휘에는 최훈차교수, 부지휘는 김보선, 피아노에 임보현, 오르간은 이은혜선생이 연주하였다. <성마가에 의한 예수의 수난>을 합창으로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여성 3중창으로, <존귀하신 주>를 남성 4중창으로 하였고, 고난과 부활 성가를 합창으로 불렀다.

광복 60주년 및 부활절 기념 금강산 남북(북남)기도회

본교회 이효종 장로는 북한의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3월 22일 열린 금강산 남북 기도회와 23일 평양제일교회건축을 위한 남북(북남)기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 기도회는 총회에서 주최하고 총회남북선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다

음은 기도회에 참석한 이효종장로의 글이다.

광복 60주년 및 부활절 기념 남북 기도회가 북한 지역 금강산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북한 땅에서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나왔다. 같은 민족 이면서도 60년동안 우리는 등을 대고 살아왔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으로 생각하고 총부리를 겨누며 살아왔다. 배고파 굶어 주는 이가 많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딱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땅을 밟았을 때 이상한 감회에 젖게 되었다.

제한된 구역 안에서 제한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대로 참고 견디며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2박 3일의 일정을 별 어려움없이 하나님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남북기도회가 개최되고 순서가 진행되면서 익투스 찬양단의 찬양은 북한 땅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점에서 감격의 순간이었고 총회장의 “참평화” 제하의 설교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으며 그곳 조그런 위원장인 강영섭목사가 그곳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서기장 목사가 대독한 공동기도문은 남북 기도회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평양제일교회 건축을 위한 남북기도회는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기도회로서 건축이 잘 진행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모든 행사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된 것을 감사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3월 담임목사 동정

- 3월 2일 백병원 예배 설교
- 3월 7일 서울장신대학교
“종교심리학” 개강
- 3월 14일 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
“성례전” 개강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남북교회 '부활절 연합기도회'



총회 대표단은 지난 22일 금강산에 도착해 광복 60주년 및 부활절 기념 남북기도회를 개최했다. 해방 이후 60년만에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북한 금강산 온정리에 위치한 문화회관에서 마련됐다.

교단 총회장 김태범목사를 비롯해 총회 임원과 61개 노회장과 임원, 각 부서와 위원회 관계자와 목회자와 성도 2백70여 명은 3월 22일 북한 금강산에 도착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서기장 오경우목사와 봉수대교회 성도들의 환영 속에 반가운 만남을 가진 뒤, 오후 6시 역사적인 광복60주년 부활절 기념 및 금강산남북기도회에 참석,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기도문을 참석자 모두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했다. 이날 강영섭 위원장 대신 참석한 오경우 서기장은 공동기도문 순서 전에 강영섭 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이어 남측 인사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했다.

도착 첫날 기도회에 이어 23일 아침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평양제일교회 건축을 위한 남북기도회를 갖고 순조로운 교회 건축을 통한 남북교회의 교류확대와 북한교회의 부흥을 위해 시도했다.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날 기도회는 총회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회계 김록현장로의 기도와 이명원장로(총회 사회부 회계)의 성경봉독,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익투수증창단 찬양에 이어 총회장 김태범목사(대구삼덕교회 시무)가 '참 평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회장 김태범 목사는 설교 모두에 "지금까지 외

국 땅에서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우리 땅에서 기도회를 갖게 돼 더욱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권력과 무력, 외세로 유지되는 평화는 일시적일요 거짓 평화"라고 말하고 "참 평화는 권력으로 최신에 무기로, 핵무기로, 강대국에 의존해서 유지될 수 없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여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두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북한 교회를 대표해 나선 오 경우 조그런 서기장도 공동기도문을 통해 동포와의 만남에 대한 감사와 60년간의 갈등과 반목 속에 지내왔음에 대한 용서를 구한 뒤, 민족의 하나될 날과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평화의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생명윤리지침' 윤곽

사회봉사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노영상)는 지난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금회기 제3차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지침서 초안을 검토했다.

그동안 본교단의 생명윤리지침서 마련을 위해 신학적 윤리학적 토대 위에서 내용을 작성해 온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윤리 지침'제하의 초안을 통해 12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을 마련하고 각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을 수정·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침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생명과 살롬(평화) ▲살롬의 파괴된 모습으로서의 질병 ▲몸과 영의 관계 ▲돌봄과 치유 ▲생명을 살리는 선교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의 현실 ▲생명의 지킴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본교단의 선언 ▲생명윤리를 위한 교회의 책임 ▲기독교 생명윤리의 구체적 지침들을 형성하는 일 ▲생명윤리의 구체적 지침과 규칙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시하는 생명윤리의 원칙들 ▲생명윤리의 일곱가지 신학적 원칙들에 대한 적용,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노영상교수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교단이 진행 중인 생명 살리기 10년 운동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생명신학

에 대한 정체성과 확립한다는 전제 아래 지침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다음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 전문성을 개발하라

3월 첫째주일은 총회가 정한 사회봉사주일이다.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사회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봉사를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다. 최근 비종교인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을 연구한 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대사회적 선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일부 교회의 문제가 크게 보도됨으로 전체 교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 것과 또 지역 교회가 스스로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타종교나 일반 민간단체의 활동에 비해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이 오히려 활성화돼 있고,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70퍼센트 가량이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사업 종사자 중에 80퍼센트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교회는 신앙의 생활화운동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극히 적다는 비판과 아울러, 교회의 조직과 운영이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예산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사회봉사를 전담하는 기구나 전문적 교역자가 부재하며,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 연구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역교회가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체계적인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봉사가 단순한 자선사업이나 종교 활동이라는 통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며 경영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소명을 갖고 사회봉사에 임할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봉사를 원활히 하

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모든 교회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하듯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역량에 알맞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및 봉사활동을 담당할 교역자나 유급 사회복지사의 채용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독도문제와 일본선교의 과제

박수길 / 재일대한국도교회 총간사

현재 가장 큰 한일관계의 이슈는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에 대해 '타케시마의 날'로 조례에서 가결했다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부는 지난 16일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의 시마네현과 자매 관계를 맺고 있던 경상북도의 지사는 제휴 파기를 선언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같은 날에 일반 시민의 독도 방문을 승인제로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방문 제한을 크게 완화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대항 조치를 발표했다.

금번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으로 인해 영토와 역사의 문제가 얽히고 반일 감정의 열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 통상부 보도관은 성명으로 조례에 대해 "금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우정이 깊어지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마네현의 조례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실로 시마네현 조례 제정의 문제는 일개 지방자치체의 문제로만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경비대나 어민

이외의 방문은 제한해 왔었다. 독도를 소관하는 경상북도나 문화재청의 승인 후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실시되려는 완화책에 의하면 방문을 신고제로 바꾸고 상륙자의 수도 1일 최대 1백 41명으로 확대했다. 관광의 목적이라면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월드컵 축구시합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간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산된 일과 최근의 한류붐이 일본에서 한창인데 이번 독도 문제가 발생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가능한 한 이런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 한다.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백 년 전은 일본에 의한 한일 합병의 길이 열린 해로 역사 교과서의 감정 문제도 얽혀 있다. 1965년의 역사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영유권 문제는 보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바란다.

2008년이면 선교 1백주년을 맞이하는 재일대한 기독교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북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상호 교류에 대한 역할 수행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또한 역사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극복하여 가는 인간 이해, 관계 이해를 깊이하려고 여러모로 활동하고 있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해 가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 논리만이 아닌 보편적인 세계상으로서의 자극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의 이념적인 분쟁을 넘어서 독도가 오히려 한일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독도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연모하는 소재로 바뀌게 되었으면 한다.

이단 사이버 '감별 기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지역별 세미나서 제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김항안)가 전국을 3개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단 사이비대책 세미나에 참가한 강사들이 이단 종파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열린 중부지역 세미나에서 정행업목사가 '기독교 이단의 개념'을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이단이라는 용어는 당파심, 교회의 통일을 파괴하는 것, 불신앙, 그리스도교를 사칭하는 자,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교회와 다른 교설 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영남지역 세미나에서 최태영교수(영남신대)도 '이단 이해와 대책'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마틴이 규정한 이단은 '성서적이나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소개하고, 국내에서 이형기교수가 제시한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신앙과 직제에 따른 기준, 탁명환씨가 제시한 11개 항목의 기준, 교의학에 기준한 정행업교수의 기준 등을 인용해 설명했다. 특히 최교수는 이단 교리의 유형에 대해 교의학의 분리인 '제시', '경전', '구원', '삼위일체', '종말'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했다.

이어 호남지역 세미나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 배정식교수(한일장신대)는 이단종파의 구분 기준에 대해 "사이비 종교를 정의의 일반적인 방법은 이단이 주는 종교행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방법은 분리주의 자들이 집단행동에 그리고 신학적인 방법은 정통주의와 비교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구별의 방법으로 △사도신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속죄 사역을 믿는가 △정경의 권위보다 더한 다른 책들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신봉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신격화 △성서 해석에 대한 자위적인 해석 등을 꼽았다.

이번 이단 사이비대책 세미나는 중부 영남 호남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역에 위치한 신학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담당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발제해 주목을 받았다. 또 정동섭교수가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를 주제의 강연을 통해 구원파를 통한 이단사이비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정행업목사(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는 "지역별 세미나를 통해 이단 사이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도 세미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순항

본 교단이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기치를 내건 이후 최근들어 미자립교회 평준화 정책 등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교육자원부 주도로 진행하던 교사 훈련 프로

그램을 노회 훈련원과 개교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노회 훈련원과 새문안교회는 지난 8일 '제1기 서울노회, 제41기 새문안 교회학교 교사대학'의 첫 수업을 시작했다. 총 12주간 이어질 이번 교사대학은 노회 훈련원과 개교회가 연합해 연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사대학에는 새문안교회를 비롯해 서울노회 소속 신일·남대문·예능·광장·문호교회 등에서 모두 3백 여명의 교회학교 교사가 참석했다.

교사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균형있게 안배했으며, 교육자원부에서 펴낸 교회학교 교사교육 교재인 교사대학 집필진들이 강사로 참여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대학과 관련해 서울노회 훈련원장 이수영 목사는 "정책총회 사업노회의 구도에 따라 노회와 교회가 협력해 교사대학을 진행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외부적인 장점 외에도 교회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빙할 수 있어 교육의 수준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노회 훈련원은 전체 강의를 이수한 교사에게는 교사대학 훈련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새문안교회 신관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된다.

남선교회 흥희천회장 선출

"선교·교육·봉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64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뽑아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히 서 가는 남선교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64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흥희천장로(창동영광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특히 "64회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히 서 가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그는 우선 "이번 총회를 계기로 기구개혁 및 회칙 통과와 함께 후보자들이 직접 등록을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선거공영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총회와 대회가 분립된 만큼 대회는 회원들의 영성 훈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앙수련회도 개최해 회원들의 신앙훈련에 역점을 한 회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기구개혁에 따라 이번 회기에 남북한선교협력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에 성경·찬송보내기 등 남선교회가 그동안 북한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것과 관련, 그는 "이번 회기에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80주년 계획의 하나로 수립했던 북한교회 건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와 창조질서 파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생명·정의·평화운동을 한국교회 운동으로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면서 오는 2014년까지 펼쳐 이 운동을 위해 남선교회 회원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4월호 · 통권 제146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욱

편집인 : (교회소식) 구익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4월 3일